축구 꿈나무 지도하는 홍명보 감독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3일 서울 목동경기장에서 전북 정읍의 '악동' 유소년 축구팀인 '리더스 유나이티드' 선수들에게 축구를 지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SK 텔레콤의 생각대로T에서 후원한 드림풋볼 캠페인이다. /연합뉴스

광주 대학생 젊음과 열정의 축제 한마당

市생체회, 6일 월드컵경기장 '생활체육 한마당' 개최

제1회 광주시 대학생 생활체육 한마당축제가 오는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 주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 기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또 이번 축제에서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생활체육 및 문화교류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전남대·조선대·호남대 등 광주지역 12개 대학교에서 5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육상·축구·테니스·배드민턴 등 체육종목 8개와 족구·줄다리기·발야구 등 민속종목 4개 등 총 12개 종목에서 학교간 명예를 걸고 기량을 펼치게 된다.

이번 축제는 6일 오전 9시30분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기를 펼치며 오후 5시부터 대학별 댄스·밴드동아리 공연과 초청가수들의 축하무대도 이어질 예정이다.

김창준 회장은 "오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이끌어 나갈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한마당 축제를 마련하게돼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열정과 패기로 뭉친 광주의 대학생들이 계속 교류의 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매년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

형만한 아우 "우리도 8강 쏜다"

U-17 월드컵 내일 멕시코와 8강 다툼

이종호·손홍민 등 급성장 자신감 충만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서 22년 만에 조별리그를 통과한 '리틀 태극전사'들이 멕시코와 8강 티켓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인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U-17 대표팀은 5일 자정(이하 한국시간) 나이지리아 바우치의 아부바카르 타파와 발레와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2009 FIFA U-17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우루과이를 3-1로 꺾고 나서 2차전에서 이탈리아에 1-2로 역전패했지만 3차전에서 알제리를 2-0으로 무너뜨려 2승1패, 조 2위로 당당히 16강에 올랐다.

한국 축구는 지난달 이집트에서 막을 내린 2009 FIFA U-20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8강까지 오른 데 이어 동생들인 U-17 대표팀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잠재력을 세계 축구팬들에게 알렸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U-17 월드컵에서 한국은 이번까지 네 차례 본선 무대를 밟았는데 조별리그를 통과한 것은 1승1무1패로 8강에 올랐던 1987년 캐나다 대회 이후 무려 22년 만이다.

신태용, 서정원, 노정윤 등이 주축이었던 22년 전에는 16개국(2007년부터 24개국)이 참가해 조별리그를 통과하면 바로 8강 토너먼트였다. 한국이 이번에 북중미 전통의 강호인 멕시코를 누르면 사실상 역대 최고 성적을 올리는 셈이다.

이광종 감독은 "아시아 축구는 세계적인 수준에 아직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강한 몇 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력이 비슷하다. 멕시코도 해볼 만한 상대다. 지난 조별리그 경기는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2000년 대한축구협회 유소년 전임 지도자로 선임되고 나서 이후 연령대별 청소년대표팀 코치를 두루 거친 이 감독은 청소년 선수들의 기량과 장단점, 성향 등을 잘 안다.

현 대표팀은 이 감독이 지휘 아래 15세 이하 대표팀부터 다져온 조직력이 강점이다.

게다가 조별리그에서 나란히 두 골 씩을 넣은 이종호(광양제철고), 손흥민(동북고) 등 프로축구 K-리그에서 직접 관리하는 유스 클럽 소속 선수들의 무게감은 나이 이상이다.

한국은 멕시코와 A대표팀 간 맞대결에서는 4승2무5패로 조금 뒤지지만 올림픽대표팀(2승3무1패)과 U-20 대표팀(3전 전승), U-16 대표팀(1승)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05년 페루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멕시코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스위스에 0-2로 패했지만 브라질(1-0 승), 일본(2-0 승)을 차례로 꺾고 B조 2위로 16강에 올라 4년 만의 정상 탈환 꿈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인 야구클럽 강진에 모인다

7~8일 강진베이스볼 파크서 'KBO총재배 야구리그' 결선

야구메카 청자골 강진에서 '제6회 KBO 총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클럽리그 결선대회'가 열린다.

강진군 도암면 (주)강진베이스볼 파크에서 오는 7일부터 2일간 열리는 이번 제6회 KBO 총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 클럽리그 결선대회에는 전국 사회인 야구 24개 팀 500여명이 참가한다.

전국야구 클럽리그 결선대회는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야구위원회(KBO)에서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가 주관,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진군, (주)강진베이스볼 파크가 후원한다.

이번 대회 결선리그에 참가한 24개 팀은 전국의 2,070여개 사회인 야구팀들이 올해 1년간 전국을 돌며 시도리그와 권역리그전을 거쳐 최종 순위가 가려진 상위권의 전국사회인 야구팀이다.

강진베이스볼 파크 4개 정규야구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결선대회는 결승전을 제외한 준결승까지 24개 팀이 총 22경기가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결승전에 오른 2팀은 오는 15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제6회 KBO 총재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클럽리그 최종 우승을 가린다.

강진군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신종플루 예방홍보 플래카드를 게첨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구급차 항시 대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의 의료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강진군 임경태 스포츠기획팀장은 "KBO 총재배 전국야구클럽대회가 강진에서 처음 개최하는 만큼 강진의 따뜻하고 넉넉한 인심을 듬뿍 선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폭행 물의' 유도 왕기춘

2개월 사회봉사 징계

지난달 17일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21·용인대)이 '주의' 조치와 함께 2개월간의 사회봉사 징계를 받았다.

대한유도회는 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왕기춘이 국가대표 합숙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데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훈련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조치하고 폭력 사건 뒤 은퇴를 시사하는 글을 남기고 잠적하는 등 유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선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우선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져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왕기춘은 3일부터 전남 목포에서 열리고 있는 대통령배 전국 유도대회에도 용인대 대표로 출전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최철한 46개월만에 랭킹 1위

'휴직' 이세돌 2위로 밀려나…이창호 3위

'맹독' 최철한이 이세돌을 밀어내고 랭킹1위에 올랐다.

최철한 9단은 3일 한국기원이 발표한 11월 프로기사 랭킹에서 지난 달보다 33점이 증가한 9천597점을 획득해 9천574점에 그친 이세돌 9단을 누르고 랭킹 1위에 올랐다.

최철한은 지난 달 삼성화재배 16강전에서 중국 랭킹 2위 천야오예 9단에 져 탈락했지만 원성진 9단, 목진석 9단 등 상위랭커들에게 승리를 거두며 6승을 쓸어 담아 6승1패의 호성적으로 랭킹 점수를 끌어올렸다.

2006년 1월 생애 처음 랭킹1위에 올랐던 최철한은 이로써 46개월만에 1위에 복귀하는 감격을 누렸다.

최근 24개월동안 1위를 지켜왔던 이세돌 9단은 지난 6월 한국기원에 휴직서를 제출한 뒤 이후 7판의 기권패를 당하면서도 2위와의 현격한 점수 차이로 수위를 지켜왔으나 최철한의 기세에 밀려 권좌에서 물러났다.

10월랭킹에서 4위로 밀려나며 체면을 구겼던 이창호 9단은 지난달 '전적' 강동윤에 2패를 당했으나 중국의 딩웨이 9단과 저우루이양 5단을 연파하고 삼성화재배 준결승에 올랐고 하이원리조트배 명인전 결선에도 진출하는 등 6승3패를 기록하며 20점이 증가한 9천558점으로 3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동아시아 대회 배구대표 남녀 각각 12명 선발

대한배구협회는 12월2일부터 9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2009 동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할 남녀 배구대표팀 선수를 각 11명씩 선발했다.

김경운 홍익대 감독이 맡은 남자대표팀에는 대학부 최고 스파이커로 꼽히는 박준범(한양대)을 비롯해 레프트 최홍석(경기대), 세터 백광언(명지대) 등으로 구성됐다. 최천식 인하대 감독이 코치를 맡았다. 홍성진 전 현대건설 감독이 이끄는 여자대표팀은 주장 김희진(중앙여고)을 비롯해 전원 고교 선수들이 뽑혔다.

▲남자대표팀=서재덕(성균관대) 백광언(명지대) 부용찬(한양대) 이승룡(홍익대) 이재목(경희대) 최홍석(경기대) 심홍석(홍익대) 고준용(인하대) 박준범(한양대) 전진용(성균관대) 최민호(홍익대) 이창한(인하대)

▲여자대표팀=표승주(한일전산여고) 최은지(선명여고) 채선아(중앙여고) 김지수(선명여고) 박정아(남성여고) 김희진(중앙여고) 김유리(경남여고) 박성희(삼산고) 김언혜(대구여고) 이나연(중앙여고) 조송화(일신여상) 안미선(남성여고) /연합뉴스

4일(수)

▲제14회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4강전(14 : 10·KBS1)

▲09/10 여자프로농구〈우리은행 : 신한은행〉(16 : 50·SBS스포츠)

▲09/10 V리그〈도로공사 : 현대건설〉(16 : 50·KBS n스포츠) LIG손해보험 : KEPCO45〉(18 : 50·KBS n스포츠)

▲09/10 프로농구〈모비스 : 전자랜드〉(18 : 50·SBS스포츠) 〈LG : 삼성〉(18 : 50·MBC ESPN)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주지 합장

卍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대표:성 봉 규 (법원등록번호 16-07-29)
·전 한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제5대 총원우회장
·(주) 시민법인 광주야기네이 공동대표
·전 경실련 재정위원장
·전 사광주경찰서 자문위원장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장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전 355-81지구 전남라이온스클럽 33대회장
·현 355-81지구 지대위원장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팀장 위치:법원정문앞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동구	지산동	2671/1927	12억7천	
남구	월산동	217/149	3억1천4백	2억8천
서구	쌍촌동	221/151	4억6천	3억2천
북구	두암동	1476/947.3	37억8천1백	19억9천5백
나주시	성북동	172/304	3억3천	1억4천
담양군	담양읍	501/280	3억4천	2억4천
장성군	북하면	2980/298	1억8천5백	3천2천
화순군	능성	373/617	4억4천	3천8백

근린시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북구	풍향동	536/1593	12억8천	8억3천7백
서구	치평동	426/1575	16억8천1백	13억1천7백
남구	월산동	162/244	2억4천	1억8천9백
동구	남동	421/11269	13억4천2백	6억
나주시	남내동	959/272	5억1천	
장성군	삼계면	411/1047	6억5천	4억5천5백
담양군	용면	3654/1165	8억3천	3억7천
	수북면	863/876	4억1천	2억3천4백
강진군	마량면	299/391	2억5천	1억5천
함평군	신광면	179/614	5억8천4백	신건
영암군	영암읍	1095/282	1억8천	1억3천
무안군	일로면	95/106	5천5백	3천

근린상가(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쌍암동쌍암	81/28	2억8천5백	1억8천5백
북구	동림동	55/35	1억6천	1억1천7백
남구	봉선동	61/38	4억5천	3억1천5백
서구	쌍촌동	192/202	2억7천	1억8천
	금호동	35/15	6천	4천2백
동구	계림동	30/12	1억6천	5천5백
	충장로	8/3	1천	7천
목포시	옥암동	45	3천	2억1천

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동구	연산동	1035/234	1억6천3백	1억1천5백
	우산동	167/169	1억1천	7천9백
남구	대지동	367/84	8천8백	6천
	백운동	180/85	1억1천	8천
서구	화정동	144/269	1억5천	8천6백
	농성동	145/102	9천	6천3백
북구	중흥동	254/164	1억8천	1억2천4백
나주시	성북동	273/208	1억1천	7천7백
	금천면	995/272	5천3백	3천7백
영암군	영암읍동	749/210	3억1천4백	1억7천6백
	덕진리	1385/140	5천4백	3천8백
무안군	운남면	413/123	5천	신건
함평	남면	434/138	7천4백	5천2백
담양	대전면	635/186	8천7백	6천1백
곡성군	입면	266/83	5천2백	3천6백
영광군	대마면	783/78	3천	2천1백
	홍농읍	1685/127	1억4천8백	1억3천
장성군	북이면	605/306	5천9백	3천6백
함평군	월야면	294/157	2천2백	7백8십
	대동읍로	1243/272	1억1천1백	6천2백

토지(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신창동	전	1064	1억1천4백		
	풍암동	대지	441	4억8천5백	3억3천9백	종상상업
	삼거동	임야	4880	1억1천6백	6천5백	보전관리
	수완동	답	4344	8억1천2백		신 자연녹지
북구	용두동	답	1147	1억1천		생산녹지
	신안동	대지	595	4억7천	3억2천	상업지역
	우두동	대지	417	5천	신건	도시자연녹지
서구	풍암동	임야	5958	5억5백	2억4백	도시보전
	매월동	답	1447	7천2백	신건	도시자연녹지
동구	학동	전,답	498	1억4천8백	신건	
나주시	노안면	괴수원	2936	9천6백	6천7백	계획관리
	봉황면	전	1973	3천1백	2천2백	생산관리
	산포면	답	2585	8천	5천6백	농림지역
		답	1997	6천4백	4천5백	농림지역
	중장동	답	2901	3천2백		농림지역
담양군	담양읍	임야	56126	4억2천	2억9천4백	보전관리
		답	4638	10억2천	7억4천	2종일반주거
	월산면	전	2215	1천8백	1천2백	보전관리
	고서면	답	2896	4천4백		자연녹지
	창평	대지외4필	1342/797	1억3천	9천7백	계획관리
화순군	도암면	전	1623	1천1백		소규천구역
	동복면	임야	59006	8천4백	4천5백	보존산지
	도곡면	답	4038	6천	4천2백	농림지역
		임야	19355	5천8백		계획관리
영암군	시종면	임야,전	6254	9천2백	6천4백	생산관리
	군서면	임야	4969	5천8백	신건	계획관리
	군서면	답	3638	3천1백	2천2백	농림지역
	도포면	답	3965	3천1백	신건	농림지역
	신북면	답	2975	2천	9백	농림지역
장성군	북이면	임야	32082	4천8백	3천3백	관리지역
	서삼면	전	3589	2천5백		보전관리
	동화면	답	720	1천	7백3십	관리지역
	황룡면	답	5469	5천3백	3천7백	농림지역
함평군	월야면	전	1849	1천4백	신건	농림지역
	신광면	답	1903	1천4백	신건	농림지역
	함평읍	답	18200	2억1천	신건	수자원보호
		답	5790	7천9백	신건	농림지역
무안군	일로읍	임야	9969	7천8백	5천5백	계획관리
	몽탄면	잡종지	4063	3억6백	2천5백	농림
	현경면	임야	8467	6천4백	5천9백	자연환경
		답	2142	4천7백	3천2백	자연환경
곡성군	입면	답	3000	3천1백	신건	농림지역
	겸면	답	2050	2천2백	1천5백	농림
	석곡리	잡종(주유)	2623/373	1억8천4백	신건	계획관리
	목사면	답	3722	4천4백	2천5백	생산관리
	삼기면	답	1424	1천7백	1천2백	농림지역
	입면	답	5114	6천1백	4천2백	계획관리

농가시설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곡성군	오곡면	대지	3051/938	1억1천6백	5천9백	제한논재목지
나주군	공산면	목장	2814/1258	1억1백	신건	관리지역
함평군	함평읍	축사	2315/1707	2억1천	신건	자연환경지역
담양군	창평면	축사	1342	1억2천	8천7백	계획관리
영암군	금정면	축사	8865	8천1백	6천4백	보전관리

숙박시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주	북구	241/711	8억4천6백	3억8천2백	
	광산구	598/1812	18억8천3백	11억1천8백	
	남구	509/1368	14억1천3백	8억3천8백	
무안군	무안읍	11741/1327	11억3천4백	4억2백	관리지역
구례군		2029/1430	7억1천	5억	
순천시	장천동	352/396	4억8백	2억8천8백	
영암군	월악면	257/1042	8천8백	5천8백	삼림지역
화순군	도곡면	2042/2796	19억4천5백	8억7천1백	

월출(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월계동	284/268	2억2천6백	1억4천	
북구	두암동	212/308	2억2천8백	1억8천	
동구	충장동	179/477	3억4천	1억5천	2종일반주거지역
	계림동	296/534	4억3천	4억3천	준가주지역

월출(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산기동(그린)	84/75	1억3천	8천1백
동구	계림동(한우리)	80/42	8천	5천
북구	두암동(홍은)	68/50	1억1천	7천7백
남구	월산동(제일)	38/39	2천1백	1천1백

종합(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운동	4297/5113	16억8천8백	13억8천	공업지역
	하남동	1738/1024	9억2천	5억4천6백	공업지역
	쌍암동	1652/1040	7억2천	5억	공업지역
북구	일곡동	1188/1083	6억8천	4억7천7백	공업지역
담양	월산	1785/791	1억3천	9천7백	계획관리

아파트(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토/건(㎡)	감정가	최저가
광주	운남동	운남주공	59/35	6천4백	5천8백
광산구	월계동	도아	95/53	1억2천5백	8천4백
	신창동	5차호반	84/49	1억4천	9천8백
남구		풍암스윗트	169/76	4억2천	2억8천
	송하동	금호타운	127/54	1억8천	1억1천
	진월동	고운하이	84/42	1억7천	1억1천8백
		삼다아파텔	81/38	1억4천	1억
동구		신영무궁화동신	158/91	3억7천	2억8천7백
	학동	아남	137/50	1억8천	
북구	문흥동	중흥	59/32	7천3백	5천1백
	양산동	일신	59/31	6천5백	4천5백
		영무아파텔	84/49	1억2천	8천4백
	운암동	남양휴튼	111/72	1억9천	1억3천3백
서구	쌍촌동	시영	50/28	5천2백	3천8백
	풍암동	대주피크	127/56	1억6천	1억1천
	금호동	미진주은	84/41	1억1천4백	1억1천8백
나주시		삼성	59/28	4천8백	3천9백
화순군	화순읍	대림그린	59/22	3천8백	2천7백
목포시	죽동동	우미블루밸	84/44	1억2천	8천4백
무안군	교촌리	석호가람	112/64	1억3천5백	7천5백
영암군	미암면	서광	72/39	3천8백	2천8백
곡성군	읍내리	송제	58/69	2천2백	1천4백

선박 가능합니다